

농협, 농산물가격안정제로 농가 보호 인간힘

광주본부, 보리 생산량 180% 급증 ... 과잉생산 1164t 매입 전남본부, 양파 3만3474t·마늘 3540t 등 수매량 대폭 늘려

광주·전남지역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해 농가가 울상이다. 날씨여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보리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44.8%) 차지하는 전남은 올해 생산량이 49.5% 많아진 8만9617t을 기록했고, 광주는 무려 179.7% 급증한 2461t을 보였다. 광주 보리 재배면적은 89.6% 커진 570ha, 전남은 3.1% 작아진 2만126ha로 나타났다.

농협 측은 올해 전국적으로 수요량 대비 8만t이 과잉 생산됐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5만~8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 40%, 농협 40%, 지자체 20% 비율로 분담하며 과잉물량을 전량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쌀보리(kg당 675원)와 겉보리(kg당 575원), 주정

용 쌀(kg당 313원) 등에 대한 가격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매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8만t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와 농협이 분담할 액수는 각각 133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과잉 생산된 보리 전량에 해당하는 1164t을 40kg당 2만7000원에 사들였다. 농협은 전국적으로 8월 중순까지 보리 특별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들어 지역 채소 농가에서 가장 큰 격정거리는 양파와 마늘 가격이다.

올해 전남 양파 생산량은 58만1958t으로 지난해(55만8659t)보다 4.2%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광주에서의 양파 20kg(등급 상) 도매가격은 9월 기준 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800

원)에 비해 32.4% 떨어졌다. 깬마늘 20kg(등급 상)은 지난해보다 29% 떨어진 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을 보면 광주는 지난해보다 53.4% 늘어난 597t, 전남은 22.6% 증가한 7만3674t으로 집계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적극 활용하며 채소 가격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려 가격이 폭락하는 폐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가에 재배량의 최대 50%까지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판매 가격은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준다. 대상은 배추와 무, 마늘, 양파, 배추 등이 있다. 정부의 역할에 치중된 '출하안정제'와는 달리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비율에 농가 자부담 20%를 더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남본부의 7월 말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수매현황'을 보면 양파 수매실적은 3만 3474t으로 지난해(3만2818t) 보다 2%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 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수매 단가는 kg당 429원에서 379원으로 50원 떨어졌다.

마늘의 수매 사정도 마찬가지다. 마늘 수매는 지난해 2479t에서 3540t으로 43%나 늘었지만 수매 단가는 kg당 2623원에서 2319원으로 300원이나 낮게 책정됐다.

배추는 계약재배 등록 농가 취소되면서 수매 물량이 590t→486t으로 18% 줄어졌고, 불무의 경우 가격 폭락에 대비해 전량 수매하면서 수매량이 493%(290t→1721t)나 늘었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품목별 수매단가는 5개년 평균 가격을 반영해 책정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경우도 있다"며 "채소수급안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과잉 물량 폐기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면서 참여 농업인이 늘고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외국인 수급 약화로 변동성 지속될 듯 주 초반 반등 팬 저점매수자 단기대응 필요

지난 5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5일 미국 반기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1988년 종합무역법 3004조)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종합무역법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바뀌는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본래 목적보다는 금융압박을 통해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선공약을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초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는 동반급락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6일 장중 1900선과 550선을 하회하며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국인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에는 미국 농산물 수입금지도 즉각적으로 대응한 반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위안화 약세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및 관세부과 압박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립각을 낮춘 채 고시환율을 적극적으로 상향하지 않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8월14일 300억 위안 규모 홍콩 위안 표기 채권 발행을 예고하는 등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노력 보여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였다.

8월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결정하고 7일 관보를 통해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초 한국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규모 품목이 규제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일본은 기존 3개 품목과 미사일, 화학/생물무기 등 안보 관련품목으로 한정했고 대부분의 품목이 백색국가의 대우가 유지됐다. 또한 8일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중 광광역인 포도 레지스트에 수출을 허가하면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국내증시도 주 초반 반등하며 마감했다.

이번 일본의 수출허가는 갈등완화로 보기보다 전면적 수출금지를 실시할 경우 일본정부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수출금지가 아닌 관리라는 명분을 삼으면서 허가물량 조절을 통해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분간 한일간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계 자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축소로 이어질 경우 수급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도 9월 미중 고위급회담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위안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은 원화와 코스피지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면에서는 위안화환율이 7위안 아래로 내려간다면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이며 만약 7.5위안을 넘어선다면 중국이 미국에 공격적 환율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어 미중 무역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과의 통상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중시장(EM) 지수 비중확대에 따른 물량조절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수 있어 외국인수급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외부변수에 의한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에 이어 주 초반 반등이 이어진다면 지난 주 저점 매수한 투자자는 단기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손실구간에 있는 투자자는 한국면에서 단기적으로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하회하며 하락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 매도보다는 보유가 바람직해 보이며 매수를 고려한다면 코스피지수 연동 지수연동형펀드(ETF) 분할매수,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저평가주와 2차 전기 및 국산화 이슈 관련주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통투자증권 광주지점장)

“한우 사랑해주세요”

농협 전남본부, 나눔축산운동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가 '섬의 날' 기념식에서 '나눔 축산 운동'을 펼쳤다.

전남본부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목포 무안산안축협은 지난 8일 목포시 삼학도에서 열린 '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농협은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며 국가 기념일인 '섬의 날' 행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인해 한우고기의 자급율이 40% 이하로 떨어져 한우농가의 소득감소가 염려된다"며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한우를 애용하는 손길이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의 '나눔 축산 운동'은 선진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8일 목포 삼학도에서 열린 '섬의 날' 기념행사에서 관광객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알렸다. <전남농협 제공>

지난해 전남 10개 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인증 농장 25개로 늘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10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은 25곳이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동물복지 농장은 총 198곳으로

전남지역은 전북(61곳), 충북(29곳)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전남 동물복지 농장은 산란계 농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육계 농장(8곳), 양돈 농장(1곳)이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전체 산란계 농장 가운데 동물복지 농장 비율은 18.7%(80곳 중 15곳), 육계는 3.9%(204곳 중 8곳)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 전남에서는 육계 7개·산란계 3개 등 총 10개 축산농장이 새롭게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화순 다솔농장·향상농장·실만한 농원, 담양 다란팜, 나주 행복한 농사꾼 등 5곳은 자유방목 형식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동물복지 농장은 2012년 3곳→2013년 1곳→2014년 2곳→2015년 2곳→2016년 3곳→2017년 4곳→2018년 10곳으로 지난해 인증 농장이 부쩍 늘었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유아교육과	7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